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제7주년 기념식

결과보고서

I 제도적 평화 I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강화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제7주년 기념식

결과보고서

| 제도적 평화 |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강화

책자명 :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제7주년 기념식 결과보고서
-제도적 평화: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강화-

발간처 :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발간일 : 2023.3.

목차

소개 4

컨셉노트 5

축사 7

기념사

HWPL 대표 12

IWPG 대표 14

IPYG 부장 17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제7주년 경과보고 20

발제

DPCW의 의의와 발전 과정 24

대화를 통한 종교 간 신뢰 구축 29

특별영상, 피스레터 낭독 및 작성 34

국가별 제7주년 기념식 행사 리스트 38

소개

본 자료집은 2023년 3월 14일 한국과 전 세계 40개국에서 개최된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제7주년 기념식' 행사 및 발제문을 엮어 정리한 것입니다.

HWPL은 모두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며, 지구촌의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평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의 참상에 맞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가는 다자적 접근을 통한 평화 증진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HWPL이 필리핀 민다나오 모로 갈등에 개입하여 장기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가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때 분쟁 지역에 어떤 구조적, 제도적 변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DPCW가 분쟁의 예방, 중재,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민다나오 지역에서의 평화 제도화 사례는 DPCW 조항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7주년을 맞아 DPCW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모함마드 나즈룰 이슬람 위원은 DPCW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전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워 인류 세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듯, HWPL이 DPCW에 담긴 평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평화교육, 인권캠페인, 종교 간 대화 등은 오늘날 이 선언문이 추구하는 가치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이루는 것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HWPL이 DPCW 8조와 9조를 근간으로 마련한 경서 비교 토론회를 통해 타 종교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서로의 종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편견이 소통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한 현장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0개국의 종교연합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대화의 장이 훨씬 더 많은 이해와 포용의 사례들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피스레터(평화의 손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WPL은 전쟁의 참상이 이어지고 있는 세계 곳곳에 평화를 사회의 기초로 만드는 일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컨셉노트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제 7주년 기념식
제도적 평화: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강화

1. 개요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이하 DPCW) 제 7주년 기념식이 2023년 3월 14일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 '제도적 평화 :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본 행사에서 HWPL은 지구촌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지구촌 분쟁의 예방, 중재, 해결을 목적으로, 지구촌에 평화를 제도로 확립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 배경

새로운 분쟁의 양상, 비국가 행위자들의 대두

현재 지구촌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인류의 네 명 중 한 명은 분쟁의 영향권에서 살고 있으며, 폭력 그리고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강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forcibly displaced people)의 수는 누적 1억 명(2022년 기준)을 넘어섰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분쟁 행위자의 변화다. 전통적인 형태의 국가 간 갈등뿐 아니라 국가 내 갈등(internal conflict)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폭력(non-state based violence)의 횟수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전통적 행위자인 국가 외에도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참여하는 다자적 접근(multi-party approach)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UN, 아프리카연합(AU) 등에서는 분쟁 해결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갈등 확산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평화 구축으로, 정치·경제적인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민족(ethnicity)·종교 등 문화적인 요인이 더해져 더욱 복잡

해진 문제에 대해 제시된 접근법이다.

HWPL은 필리핀 민다나오의 모로 갈등에 개입하여 장기적 평화 구축에 기여하였다. 이 사례는 갈등 당사자들의 소통을 연결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가 정착되기 위한 법적·경제적 구조를 만들며, 갈등이 발생한 지역의 시민들이 평화를 지지할 수 있는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에 다자적 접근의 효과를 증명한 사례이다. 이것은 평화가 제도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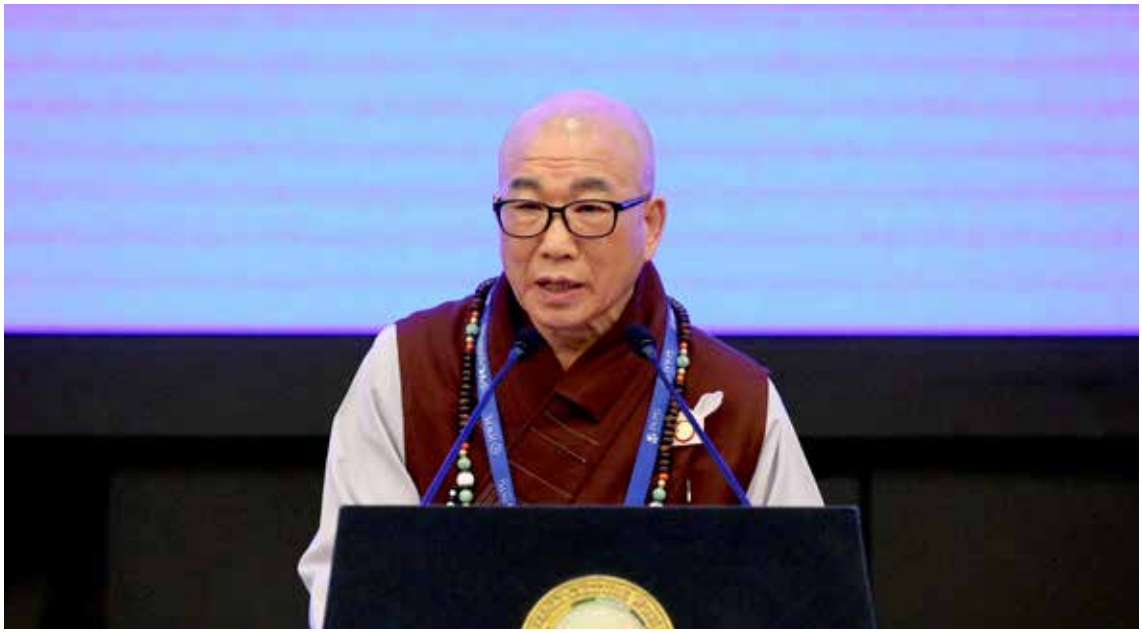
3. 내용

2016년 3월 14일 오후 3시 14분에 공표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이하 DPCW)은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안으로 10조 38항을 제안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 외에도, 8조에서 10조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문화로 확립하고 전파하는 지구촌의 여러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 정체성이 존중되면서도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운동 단체 및 기구들의 연대와 그 활동, 상호이해와 존중을 권장하는 교육 등이 제시되고 있다.

HWPL은 DPCW의 정신에 기초한 평화 사업을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갈등 지역에 정부와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지역 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종교 간 오해를 해소하고, 종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에 종교 간 대화 채널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130개국에서 활발한 대화의 장을 운영하여 왔다.

DPCW의 기본 정신은 평화를 이루는 주체는 시민이며, 존속 가능한 세계 질서는 힘의 통치가 아닌 조화, 공평, 정의를 이루는 법의 통치라는 데에 있다.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는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그 성과들이 공유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시행되는 평화 운동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축사



석연화 스님 세계불교승왕청 승왕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가족 여러분!
저는 세계불교승왕청 승왕 석연화입니다.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주최하는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 제7주년 기념식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HWPL 이만희 대표님을 비롯한 임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HWPL 이만희 대표께서는 세계 곳곳을 다니시며 지금까지 세계 어떤 지도자도 하시지 못했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의 사자가 되시어 지구촌을 누비셨고 아직도 전운이 남아있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하여 무기를 든 그들을 설득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어 일터에 나아가 땀의 고귀한 대가를 맛보게 하신 업적은 인간 승리요 평화운동 사자의 승리요 HWPL 가족 여러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HWPL이 지구촌 각계각층의 평화의 사자들과 함께 지구촌 분쟁의 예방, 중재, 해결을 목적으로, 지구촌에 평화를 제도로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한 DPCW가 금번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7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제도화되고 UN에도 상정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도자

들의 지지로 공표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각국 대표와 각 사회단체에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 종파를 초월 지구촌 모든 국가나 기구 단체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만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이 주창하는 전쟁 종식 평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세계불교승왕청 승왕 석연화

축사

테오도르 멜레스카누 **루마니아 전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DPCW 제 7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20년까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해오면서 국제사회와 질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하고 중요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키케로는 정의로운 전쟁보다 불의한 평화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영토 정복, 인명 살상, 기반 시설 파괴는 우리 시대의 해결책이 아니지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 균형에 대한 우려도 야기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재조정의 시대 및 경쟁의 세계 속에 있으며, 우리가 국제사회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DPCW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DPCW를 통해 국가들이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저희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쟁종식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고귀한 일을 이뤄가는 HWPL 이 대표님의 행보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 평화 세계 실현이 더욱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어윤바타르 체렌다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몽골 국립 협회 대표, 몽골 전 부총리**

안녕하십니까, 먼저는 DPCW 제7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구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의 예방, 중재,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DPCW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선두하고 있는 이 대표님과 HWPL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DPCW의 정신에 기초한 HWPL의 평화 활동을 몽골에서 직접 목격하였으며, 약 400여 명의 법조인과 사회 인사들이 DPCW를 이해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선언문에 기초한 DPCW의 내용에 깊게 공감하며 그것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 7주년 기념식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주체인 시민들의 활동이 HWPL를 통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

이만희 HWPL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함으로, 평화 세계가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구촌을 돌면서 평화를 외쳤고, 우리가 함께 한 평화 활동은 나무가 자라듯 자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평화 순방을 하며 느낀 것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평화를 마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그러하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평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화는 가정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가정과 학교에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그것이 몸에 배어 살과 뼈가 되듯 깨달음이 된다면 우리는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을 야기하고 싸움을 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교육이라면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종교 경서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고, 그 가르침을 배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전쟁과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평화를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국제법을 선택한 것은 현재의 국제법이 완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제법 제정 위원들이 DPCW 10조 38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웠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니, 우리는 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10조 38항의 의미를 알리고 전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HWPL은 DPCW 10조 38항을 UN에 보내고, 국제법 제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 전쟁 때 최전방 전투병으로 참전했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포가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우성치고, 풀 포기 하나 남지 않은 터전에서 배고픔과 또 싸우게 되지요. 이것이 전쟁입니다. 이전에 한국 부산의 유엔 공동묘지에 방문하여 회의를 했던 이유는 전쟁의 참상과 아픔이 무엇인지, 평화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국가는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꼭 전쟁으로만 해야겠습니까. 대화로도 해결할 수 있고, 국제법도 있지 않습니까. 대화로, 국제법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말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참 사랑입니다.

오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 짓고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을 만듭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의 사자가 됩시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념사

윤현숙 IWPG 대표

세계 평화를 소망하고 이루어 가시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WPG 대표 윤현숙입니다. HWPL의 협력 단체이자 한쪽 날개로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공표 7주년 기념식에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재난도 있었지만 HWPL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족들은 그 행보에 멈춤이 없었고 DPCW를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맡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IWPG는 전 세계 39억 명의 여성들과 함께합니다. 여성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구촌에서 분명한 존재감과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구성원이 됩니다. IWPG는 이러한 여성들과 지난 10년간 전쟁종식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우리에겐 바로 DPCW라는 확실하고 명확한 평화 실현의 답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저는 UN에서 개최한 제67차 CSW(여성지위위원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있었습니다. 금번 CSW는 국가 차원의 크고 작은 회의와 더불어 국가 사이드 이벤트 및 전 세계 NGO가 주최하는 800여 개의 병렬 행사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IWPG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 세계 여성 단체와 교류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분들과 만났고, 6개국의 장관과 2개국의 대사, 그리고 2개국의 준정부급 기관장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67차 CSW에서는 IWPG에게 아주 특별한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2개국과 공동으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여 IWPG의 평화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이 교육의 근간이 되는 DPCW에 대해 연설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멕시코 대사관이 주최한 교육 관련 병렬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사업을 펼치는 실무자들이 IWPG 평화교육의 활동상황을 듣고 우리와의 업무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국가의 참석자들이 평화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며 IWPG에 협력을 요청했고 DPCW에 대해 지지를 했습니다.

지구촌 각지에서는 아직도 분쟁과 전쟁,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PCW는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DPCW의 내용에 공감했고, 특히 전쟁이 있던 국가의 참석자들은 더욱 DPCW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보편화하고 법제화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따라서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각국의 장관과 정치인들, 여성 단체장들은 IWPG와 협업하며 DPCW의 UN 상정을 지지하고 촉구할 것을 약속했고, DPCW에 관한 콘퍼런스를 본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DPCW 지지를 위한 대통령과의 대담 주선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 UN 방문을 통해 저는 DPCW가 갖는 파급력과 보편성을 재차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정신을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명문화하고, 더 나아가 제도화하고 계신 HWPL 이 대표님과 국제법 평화위원회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자유와 평화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님께서 전 세계를 32차례나 다니며 평화와 DPCW를 전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 중 평화를 실현 가능하다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PCW 공표 7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이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전쟁이 종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평화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실상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과 HWPL, 그리고 DPCW는 IWPG의 평화사업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IWPG의 첫 번째 평화 활동 기념비가 필리핀의 다바오 데 오로 지역에 건립되었습니다. HWPL 이 대표님의 중재로 필리핀 민다나오에 민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종식이 이루어진 일을 보며 이 평화의 정신을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도 전하고자 기념비를 건립한 것인데요, 이는 DPCW 10조 '평화문화의 전파' 조항을 이행하는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지역에 평화활동 기념비를 건립하고, DPCW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 지구촌 39억 여성의 단결된 힘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평화의 리더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분쟁, 차별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이 아닌, 자유와

평등, 사랑과 상생의 평화로 하나 되는 지구촌을 만들어갑시다.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사자가 되어 DPCW의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합시다. 우리는 평화와 자유와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

정영민 IPYG 부장

안녕하십니까, IPYG 부장 정영민입니다. 오늘은 DPCW 가 발표된 지 7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 평화의 답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 DPCW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PCW는 많이 소개된 바와 같이 10조 38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쟁의 예방, 분쟁의 해결, 평화 유지라는 3가지 큰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문의 형태로 공표됐고 UN을 통해 국제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 지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DPCW의 장점을 세분화해 이야기해 보자면 먼저는 법과 원칙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국제법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강대국의 침공이 발생했을 때 주변국들이 이 침략을 의무적으로 침략전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틈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자신의 이권에 따라 침략을 방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DPCW는 침략이 발생 시 모든 국가가 이를 침략전쟁으로 간주하도록 내용을 강화했고, 침략을 묵인하는 행위를 용납지 않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침략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침략이나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내정간섭을 일으킬 때 다른 강대국도 이전에 국제법을 어겼으니 우리도 어겨도 된다는 식의 합리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DPCW 가 국제사회의 기준이 된다면 이 시점부터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DPCW는 국제법적으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확고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그다음은 분쟁 예방과 평화 유지 측면으로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원칙과 법이 있어도 계속 범법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국제 사회의 일원 모두가 평화가 중요하고 분쟁이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태도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HWPL에서는 DPCW 8,9,10조 종교와 민족 간 화합, 문화로서의 평화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DPCW는 이렇게 전 세계인의 발상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DPCW 근거로 제작된 평화교육 프로그램, 대학생을 위한 DPCW 핸드북 교육, 다양한 인권, 차별 금지 등의 주제로 진행 중인 평화 웨비나, 종교 지도자 간의 대화와 종교캠프가 그 증거물들입니다.

이렇게 DPCW는 기존 국제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겠다는 이 대표님의 취지로 만들어진 문서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 구석구석에 그 변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평화의 답, 평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2차 평화순방을 통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DPCW를 통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분쟁의 주체였던 필리핀 정부와 민다나오 지역 간의 평화 정착이 이뤄졌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에는 수십 년간의 분쟁이 멈췄고, 민다나오 자치지역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치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DPCW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으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평화음악 축제가 이번 순방 기간 중 민다나오 지역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와 각 계층 인사들은 DPCW의 성과를 인정해 민다나오 평화 협정일인 1.24일을 국가 평화의 날로 지정하려 추진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내 가장 큰 분쟁지역 중 하나였던 필리핀은 DPCW와 함께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고 이는 DPCW 실효성의 크나큰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7주년을 넘어 DPCW는 더욱 영향력을 확대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 문화 확산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평화의 사자 분들도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귀 기울이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엔 경제적 발전과 안정된 사회가 주를 이룰 것 같았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에는 많은 분쟁과 갈등이 생겼고, 그 가운데 항상 청년의 희생이 제일 컸습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 끌려가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이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불공정 중 이것이 가장 큰 불공정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죽으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촌을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갑시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평화를 가르치지 않으면 누군가 그들에게 폭력을 가르칠 것입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잊지 맙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평화의 가족분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외친다면 이는 모든 지도자에게 닿을 것입니다.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제7주년 경과보고

프라빈 파렉 **인도 변호사 연합회 대표**

친애하는 전세계 평화의 사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인도 국제법학회의 회장이며, 대법원 변호사 협동 조합 회장 및 인도 변호사 연합회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 대법원 변호사 협회장으로 6번 선출되었으며, 인도 기록 협회장으로 10번 선출된 바 있습니다.

7주년을 맞아 지구촌 전세계에 퍼져 활동하고 계신 평화의 사자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HWPL에서는 지난 한 해에도 DPCW의 가치를 알리고 유엔 상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25일 HWPL 이만희 대표님께서는 '세계평화선언문' 선포, 이후 2014년 9월 18일 평화 만국회의에서 29명의 전직 대통령, 대법관 및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국제법 제정 발의 협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평화 국제법 제정을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이후, 17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을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ILPC)'로 위촉하여 평화 법안 작성의 초석을 다졌고, 그들을 통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작성되었으며, 2016년 3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지구촌을 향해 공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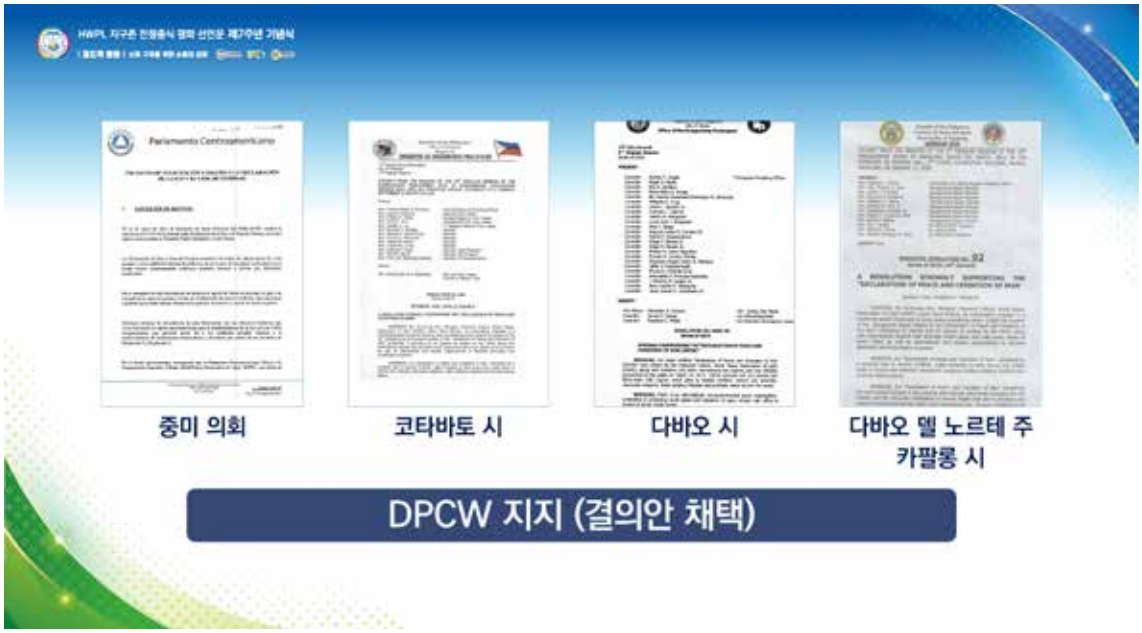
저는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참여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한국에서 진행된 HWPL의 모든 중대한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HWPL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을 DPCW 안에 담았고, 이를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으로 제정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현세대와 후대에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영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소통의 강화를 통해 노력해왔습니다. 제도적 평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평화가 보편적인 문화와 규범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HWPL은 선언문이 공표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DPCW 지지 확보를 위한 활동과 DPCW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인 레지슬레이트 피스 프로젝트(LP Project), 종교연합사무실, 평화교육을 특히 전 세계 청년과 여성,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신뢰 구축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18년에 아프리카 55개국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연합(AU)의 입법기관 범아프리카의회(PAP), 동유럽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된 발트흑해이사회(Centre BBS)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카리브해 국가들의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된 카리브해 평화지도자 연합(CCLP)과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작년에도 안데스 지역 5개 국가로 이루어진 IGO 팔란디노(안데스의회)와 MOU 체결, 필리핀 4개의 시립 도서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HWPL 회원들은 또한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하도록 초대받았고 저는 그러한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MOU, MOA를 통해 곳곳의 DPCW 실현과 평화 활동 협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DPCW는 2017년 중미의회(PARLACEN)와 2019년 필리핀 민다나오 코타바토시 및 다

바오시, 2020년 민다나오 다바오 델 노르테주 카팔롱시, 2022년 마닐라 시에서는 DPCW가 결의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고위급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257건의 DPCW 지지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지지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에스와티니와 세이셸, 코모로 외교부, 앤티가 바부다 국무총리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외교부에서 DPCW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필리핀의 분쟁지역이었지만 평화로운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민다나오의 자치정부 수석장관은 DPCW를 지지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민다나오 다바오 데 오로 주 및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시가 DPCW를 공식 지지 선언했습니다.

전쟁의 주된 원인인 종교간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제시된 DPCW 8조와 9조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130개국 278개소의 종교연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5,597회 논의 및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DPCW 10조 평화세계 유지를 위한 HWPL 평화교육을 통해 후대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평화의 문화와 정신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47개국 313개소가 평화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56개국에서 1,090회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HWPL과 전세계 평화의 사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제도적 평화를 이루는 일은 우리 눈앞에 현실의 일입니다. 머지 않아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도 HWPL의 평화 활동은 중단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제도적 평화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분쟁 지역에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을 위해 평화 교육과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공표 제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물론 영원히 평화의 일꾼으로 함께 합시다. 오늘날 세계 평화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강대국들과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HWPL 7주년 기념 행사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의장 프라빈 파렉

발제

DPCW의 의의와 발전 과정

모함마드 나즈룰 이슬람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카대학교 법대 회장, 모함마드 나즈룰 이슬람입니다.

먼저 3월 14일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7주년 기념식에 초대해 주시고, 발제할 기회를 주신 HWPL 이만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론가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을 위한 남아시아[South Asian for Human Rights (SAHR)]'라는 인권 구호 단체의 집행부 임원이었습니다.

또한 HWPL의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위원으로, DPCW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의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방글라데시 전 법무부 장관인 카말 호세인의 제자입니다. 이 대표님을 존경하는 카말 호세인의 추천으로 2015년 처음 한국에 와서, 평화의 궁에 방문하여 이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이 대표님께서는 평화의 일을 하고 계시며, 2023년 1월에 필리핀 민나다오로 32차 세계 평화 순방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DPCW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전 세계 훌륭한 법조인들의 노력과 이만희 대표님의 끊임

없는 피드백으로 DPCW 10조 38항을 완성했습니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제가 보고 들은 DPCW의 의의와 그 발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과 미팅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이만희 대표님께서 HWPL이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의 문서를 발전시키고,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다고 설명하셨을 때, 저는 대표님께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많은 문서가 있고, 유엔 헌장이나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새 문서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저에게 글로벌 시민의 관점에서 문서를 개발하고 UN 헌장과 UN 문서의 부족한 점을 다루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HWPL은 15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HWPL 국제법 평화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공표했습니다. 10조 38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유엔 설립의 기초가 된 정신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DPCW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DPCW는 전쟁종식, 국가 및 사회 간의 평화, 우호 관계, 번영, 행복이라는 매우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선언문의 핵심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매우 가깝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PCW의 최종 목표는 유엔 총회의 결의안으로의 상정뿐만 아니라 결의안 통과 후, 각 국가에서도 DPCW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평화 국제법으로 자리매김하여 전 세계에 평화가 정착되고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위해 유엔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동시에 DPCW의 가치를 시민 사회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는 매년,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대면으로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모여 할 일을 논의하며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대학·교육기관 내 DPCW의 평화 교육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열린 제7차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회의에서 'DPCW 커리큘럼' 제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완성된 DPCW 커리큘럼은 교수와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논의 사항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평화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 실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DPCW 커리큘럼을 활용한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도 뱅갈로 대학교 법대와의 MOU 협약식

최근 2023년 2월, 카르나타카주 뱅갈루루시의 뱅갈로 대학교 법대(University Law College, Bangalore University)에서 '평화 제도화의 완성, DPCW가 필요하다'의 오프라인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대학의 운영진들과 법대 학생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 결의식 및 본교 법대와 HWPL 간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NGO, 청년 단체,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DPCW 핸드북 토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HWPL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DPCW의 기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궁극적인 영향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DPCW가 현재의 평화 문화와 평화 운동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 번영, 행복을 위한 글로벌 운동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그 영향력 중 눈에 띄는 것은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의 멘토 교수들이 이 프로젝트를 다른 학교 법대에 소개해 주며, 법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DPCW 10조 38항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청년들이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DPCW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PCW는 세계인권선언문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선언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이전에는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있었으며, 이것들은 민초가 이루어낸 투쟁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여 만든 1972년 헌법 또한 민초의 투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초의 외침 없이는, 절대적 다수의 지지 없이는 그 어떤 사상도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기에 DPCW도 풀뿌리 운동을 근간에 두고 세계의 모든 시민과 국가가 한마음으로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서 진행된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인권 웨비나'에서는 풀뿌리 운동의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인문학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이 왜 중요하며 왜 우리는 인권을 지켜야 하는지를 DPCW의 기본 정신인 풀뿌리 운동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당시 참석했던 분들께 인간으로서 의무 이행과 오늘 시간을 통해 깨달은 바를 타인에게도 일깨워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DPCW를 기반으로 또 다른 유형의 인권 운동과 담론의 장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실제로 행사 참석자들은 DPCW의 정신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시민문화 교육'을 열어 DPCW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를 법조인뿐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위원으로서 DPCW 초안을 만들었고 DPCW가 세계에

알려지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PCW에 담긴 평화의 가치가 보편화된다면 세계시민의 인권의 가치가 보장되고 전쟁이 종식되어 마침내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HWPL의 이만희 대표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하나 되어 평화의 사자가 평화의 제도화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에서부터 각국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됩시다.

발제

대화를 통한 종교 간 신뢰 구축

명안 스님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서 일하고 계시는 HWPL의 귀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 인연경에 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평화를 위해 한 가족이 된 우리는 그 인연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칠천 겁의 인연으로 맺어졌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평화가 이루어지겠느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과 자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은 너무 당연하고 또 마땅히 이뤄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국불교여래종의 창종주 되시는 인왕 대사님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늘 듣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인왕 대사님은 HWPL의 대표님처럼 6.25 참전용사셨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고 언제나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구촌 한 가족”을 천명하시고 “공생 공영 공존”을 설법하셨으며, 일붕 서경보 스님과 함께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비석을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이에 여래 종단 모두는 그 뜻을 받들어 오래전부터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마음의 끈이 이어졌나 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귀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 세계를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90세가 넘는 고령의 연세에도 쉼 없이 일하시는 이 대표님의 모습은 인왕 대사님을 생각하게 했고, 그 뜻을 좇아 기쁘게 동참하고 있는 HWPL 가족들은 여래 종단과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평화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같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지금 HWPL의 많은 활동 중에서 종교연합사무실 경서비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패널과 함께 토론회를 시작한 지 어느새 40회나 됐습니다.

처음엔 같은 종단 안에서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이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이 대표님께서 왜 경서비교토론회를 만드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솔직히 편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해했던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역시 불교처럼 사랑과 자비, 평화를 실천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대표님이 지향하는 세계평화와 전쟁종식은 불교가 갖는 보살 사상의 의미와 같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토론회 패널들은 더 이상은 이슬람 이맘도 기독교 목사도 아닙니다. 이젠 아들 같고, 조카 같습니다. 남이었던 사이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얼마 전 토론회에선 대구에서 있었던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벌어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먼저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됐고, 또 목사님은 기독교를 대신해서 사과한다는 말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종교 간에 많은 분쟁과 핍박,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것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서비교토론회에 많은 종교인들이 참석한다면 어떨까요? 저와 같은 변화가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많아지니 하나가 되고 다툼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제가 몸담고 있는 사찰인 옥천 대약사사에서 작게나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개최한 “종교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평화기원행사”인데 100여 분이 참석해서 바람개비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도 담아보고, 멋진 공연도 하고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토론회도 직접 보여드렸는데, 그때 참석했던 스님 한 분이 자신도 토론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40회 차 토론회에서도 한 목사님이 참관하셨는데, 그분 역시도 이런 화합의 자리를 놀라워했고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함께 하는 패널분들, 또 종교 인사들, HWPL 회원들과 함께 불우이웃 돕기 일일찻집도 열어 서구청장과 함께 기부식도 했습니다. HWPL과 함께 인왕 대사님의 뜻을 더욱 실천할 수 있어 행복하고, 저의 행함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HWPL의 많은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5월에 했던 평화기원행사도 올해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회 평화기원행사가 되겠죠. 100여 명으로 시작된 1회 행사보다 2회에는 2배 3배 10배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일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저희 사찰인 대약사사에 종교연합사무실도 개설해 종교 간의 화합을 이뤄내는 데 대약사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뤄갈 예정입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현존하는 국제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HWPL에서는 국제법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룰 새로운 국제법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항”을 공표하였고 오늘이 공표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평화의 사자들은 곳곳에서 DPCW 10조 38항을 UN에 상정하여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DPCW에는 종교 간 분쟁 방지 및 종교평화문화를 촉진시키는 내용으로 “제8조 종교의 자유”와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를 들 수 있는데, 참으로 획기적이라 생각하여 저도 종교지도자로서 DPCW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HWPL의 평화 활동 방향인 경서비교토론회,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제정, 평화교육 등의 일들은 아주 바람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꼭 필요한 제도이고 누군가는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촌 전쟁 종식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DPCW 10조 38항이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평화 가족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평화 가족 여러분,
평화를 지향하는 HWPL 이 대표님의 뜻이 관철된다면,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 종교 간에 소통과 화합을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함께 HWPL의 평화의 일에 동참합시다.

불경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큰 소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HWPL과 하나 되어 평화의 세상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서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특별영상, 피스레터 낭독 및 작성

[특별영상] 평화의 유산 민다나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민다나오주 다바우시에 살고 있는 아홉 살 애슐리 데이컵입니다.

저는 엄마가 해준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억해요. 민다나오에서 일어난 무서운 일을 봤다고 했어요. 폭죽처럼 터지는 총소리와 전쟁 때문에 마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무서워서 집 밖으로 자주 나갈 수가 없었대요. 엄마의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있었던 일이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무서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고 모든 아이들도 저와 같을 거예요. 저는 평화가 승리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과 가족의 평화 우리 학교의 평화 평화가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HWPL의 평화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사해요. 우리나라를 여러 번 방문해서 평화 교육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얻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필리핀을 평화를 가져다주신 이만희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HWPL 평화교육의 모든 것을 배워서 평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HWPL이 있기 때문에 민다나오에 평화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평화의 마을 민다나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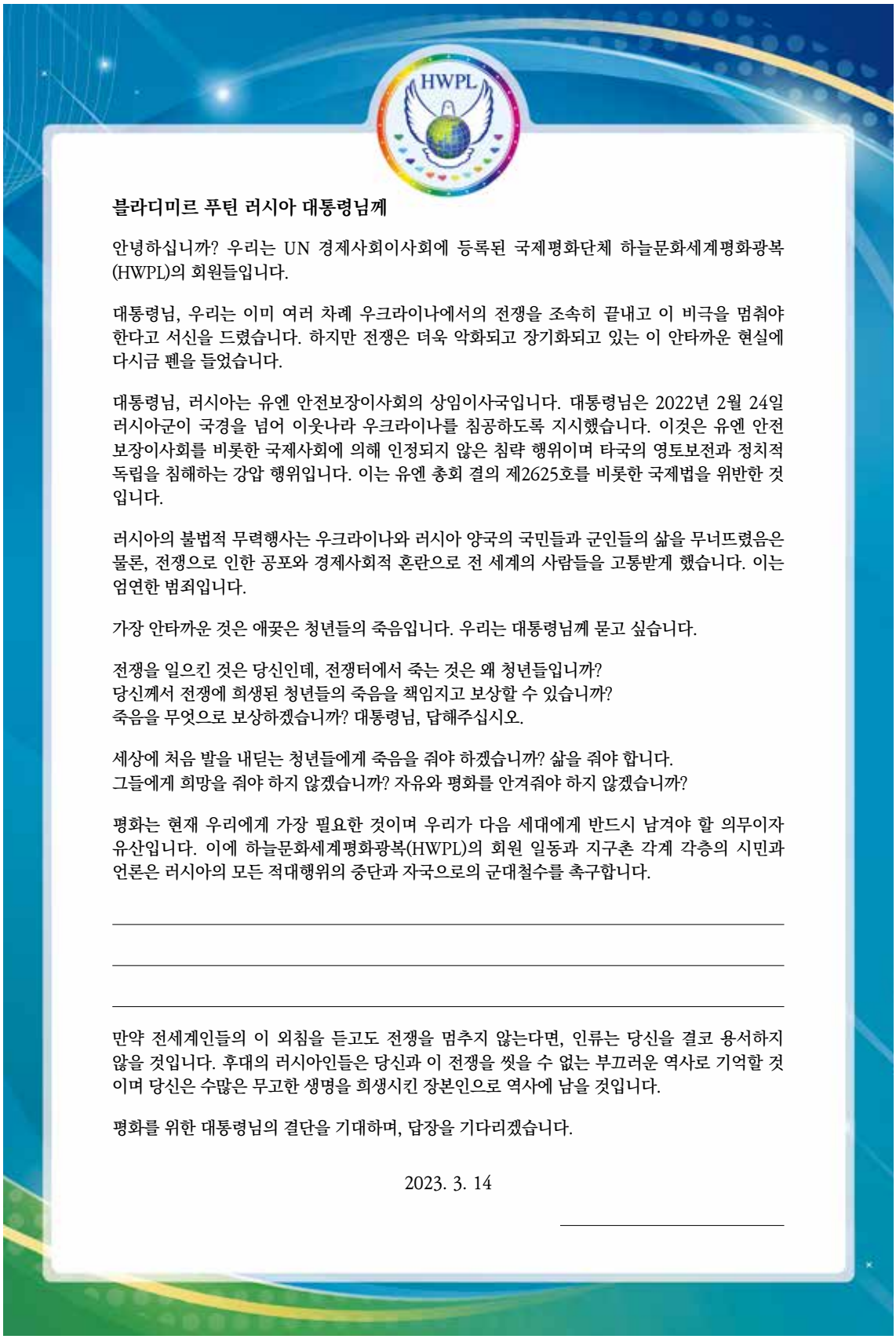
서 죽어가는 사람들...

WE
PEACE
평화가 저의 소망입니다

Be selective with your
battles.
저는 HWPL 평화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더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피스레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국제평화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회원들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이 비극을 멈춰야 한다고 서신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다시금 펜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입니다. 대통령님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침략 행위이며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강압 행위입니다. 이는 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를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불법적 무력행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국민들과 군인들의 삶을 무너뜨렸음은 물론,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경제사회적 혼란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애꿎은 청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당신인데,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왜 청년들입니까?
당신께서 전쟁에 희생된 청년들의 죽음을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대통령님, 답해주십시오.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죽음을 줘야 하겠습니까? 삶을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와 평화를 안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의무이자 유산입니다. 이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회원 일동과 지구촌 각계 각층의 시민과 언론은 러시아의 모든 적대행위의 중단과 자국으로의 군대철수를 촉구합니다.

_____

_____

_____

만약 전세계인들의 이 외침을 듣고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인류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대의 러시아인들은 당신과 이 전쟁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할 것이며 당신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하며,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 3. 14

_____

PEACE LETTER

국가별 제7주년 기념식 행사 리스트

번호	행사 날짜	국가	지역	참석자 수
1	2023.03.11	필리핀		1,000
2	2023.03.11	호주	멜버른	215
3	2023.03.14	대한민국	광주	200
4	2023.03.14	인도	뉴델리	200
5	2023.03.14	스리랑카	콜롬보	50
6	2023.03.14	대한민국	원주	200
7	2023.03.14	대한민국	대전	150
8	2023.03.14	대한민국	전주	300
9	2023.03.15	대한민국	부산	100
10	2023.03.15	인도	타밀나두주	150
11	2023.03.16	소말리아		25
12	2023.03.16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케이프타운, 마세루	150
13	2023.03.17	미국	엘에이	360
14	2023.03.17	몰디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말레, 이슬라마바드, 카불	40
15	2023.03.17	태국		50
16	2023.03.17	대한민국	대구	120
17	2023.03.17	영국	런던	50
18	2023.03.17-18	중동, 아프리카		50
19	2023.03.18	일본	후쿠오카	50
20	2023.03.18	호주	시드니	70
21	2023.03.18	콜롬비아	보고타	60
22	2023.03.18	방글라데시	다카	60
23	2023.03.18	대한민국	부산	80
24	2023.03.18	일본	오사카	50
25	2023.03.18	미얀마		25

번호	행사 날짜	국가	지역	참석자 수
26	2023.03.18	동티모르		40
27	2023.03.18	카메룬		50
28	2023.03.18	미국	시카고	150
29	2023.03.18	인도	람푸르	300
30	2023.03.18	스위스	취리히	120
31	2023.03.18	뉴질랜드	오클랜드	70
32	2023.03.18	네덜란드	로테르담	50
33	2023.03.18	잠비아	루사카	50
34	2023.03.18	일본	도쿄	60
35	2023.03.18	포르투갈	리스본	10
36	2023.03.18	미국	텍사스	100
37	2023.03.18	파키스탄	라호르	100
38	2023.03.18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70
39	2023.03.18	케냐	나이로비	120
40	2023.03.18	우간다	캄팔라	2,200
41	2023.03.19	호주	브리즈번	80
42	2023.03.19	수단		25
43	2023.03.19	남수단		30
44	2023.03.19	르완다		35
45	2023.03.19	부룬디		22
46	2023.03.19	미국	뉴욕	150
47	2023.03.19	독일	베를린	170
48	2023.03.19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35
49	2023.03.19	인도	첸나이	80
50	2023.03.19	튀르키예	이스탄불	100
51	2023.03.1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0
52	2023.03.20	미국	워싱턴	150
53	2023.03.20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13
54	2023.03.20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90

번호	행사 날짜	국가	지역	참석자 수
55	2023.03.20	몽골	울란바타르	1,000
56	2023.03.20	피지	수바	50

(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